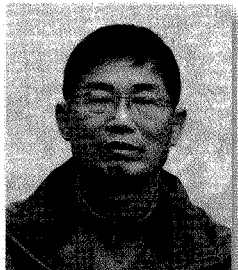




상록조경을 찾아서

호남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광주광역시 그중에서도 수려한 명산
무등산을 품고 있는 북구 두암동에
자리한 자연석 조경으로 명성을 이어온
허백현 사장의 상록조경을 찾았다.



허백현 (상록조경 대표)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말바위 지역에 자리 잡은 상록조경 사무실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시내 쪽으로 2km 떨어진 말바우4거리 중간의 4층 상가 건물 2층에 상록조경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 시내 외곽의 한산한 길가에 우뚝 서 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 그 모양이 마치 말의 머리를 닮았기에 옛날부터 말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이름난 바위는 1980년대 개발에 밀려 어느 날 없어지고 지금은 그저 말바우시장과 말바우4거리라는 지명만 남은 이곳 광주시 무등도서관 앞에 제법 넓은 800평의 부지를 확보 사무실과 전시포 그리고 화원까지 개설하여 줄곧 한자리를 지켜

온 상록조경은 2006년 근린공원 개설로 어쩔 수 없이 건너편 상가 건물에 사무실만 이전하였었다. 지금도 창가에 서면 지난날 자연석을 쌓아 놓고 조경수를 가식하던 일 들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러 어느새 토박이가 되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단다.

자연석으로 시작한 조경업

그의 고향은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 지금의 호남고속도로 곡성 휴게소가 자리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의 3남 3녀 중 차남으로 1952년도에 태어난 그는 평생 농사밖에 모를 줄 알았던 부친께서 1968년 광주 시내로 이사하여 당시는 생소하고 수요도 많지 않던 조경용 자연석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그 역시 학업을 마치고 군대 제대 후 부친 사업을 돕다가 1982년 상록건설조경이라는 회사를 설립 자연석 판매 시공을 위주로 조경수도 겸하는 주로 개인 주택의 정원 공사를 맡아 하던 아주 작은 업체로 시작하였으나 그간의 경험을 살린

성실한 시공으로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1993년에는 (주)상록건설조경으로 확대하고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전문 조경업 면허를 취득 본격적인 조경인의 길로 들어섰다.

상록조경의 꿈 승주농장

그는 호남 지방 여러 시·군에 10여 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꿈을 실현해가는 가장 대표적이며 중심이 되는 농장은 승주농장이다.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에 자리한 승주농장은 입구부터 수려한 계곡과 작은 폭포들 그리고 편백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멋진 공원 같은 풍경이다.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경수 재배가 아닌 자연석 위주의 조경시공으로 성장하였기에 조경수 재배를 위한 농장경영은



농장 내 인공폭포 앞의 허백련 사장



계곡과 폭포로 된 교량



편백나무 숲과 농장진입로



농장 내 작은연못과 정원

소홀히 하였다. 다만 조경업 면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농장면적과 수종을 확보하느라 고향 땅은 물론 멀리 해남까지 사방에 농장을 조금씩 마련하다 보니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농장이 없었다.

2000년도 우연한 기회에 법원 공매로 나온 이 땅 6만여 평을 낙찰받아 2002년부터 조금씩 나무들을 심고 가꾸다 보니 어느새 풍경도 멋있게 변화되고 조경수들도 한껏 어울려 자라는 종합 농장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방치된 편백나무들과 여기저기 덩불이 우거진 폐경지였던 곳을 진입로를 내고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꿈과 혼을 실어 조경수 농장으로 변모시켜 나갔단다.

영산홍과 철쭉의 특산지 승주읍

농장이 있는 유흥리 일원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영산홍과 철쭉 집단 재배지역이다. 호남고속도로 승주 나들목에서 광주 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약 3km를 가다 다시금 산골 마을길로 4km를 가서야 도착하는 농장 가는 길 양편의 논, 밭들은 온통 영산홍과 철쭉 재배지들이다.

북쪽 뒤편은 유치산(해발530m), 닭봉(해발744m),



단풍철쭉 농장

오성산(606m)이 있고 그 앞에 동흥천과 호남고속도로가 지나며 남쪽은 거대 사찰인 송광사와 선암사가 자리한 명산 조계산(해발884m)이 자리한 높은 산 속에 둘러싸인 산촌부락은 온화한 남쪽 지방에다 밤낮의 기온 차가 커서인가 나무도 잘 자라고 이곳에서 생산된 것은 전국 어디에다 심어도 적응력이 뛰어나 1980년대부터 삼목 번식으로 조금씩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전국 제일의 영산홍, 철쭉 재배 단지가 된 유명한 생산지에 조경수 농장을 갖게 된 것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편백나무 숲 속의 정원 같은 농장

마을길에서도 산속 깊이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농장은 막상 당도하니 의외로 사방이 확 트이고 아늑하며 풍광 또한 멋질 수가 없다.

산속에 자리한 단순 조경수나 심어 놓은 농장이 아니라 각종 나무와 꽃 그리고 자연석을 잘 조화시킨 커다란 숨겨진 정원을 보는 것 같은 운치를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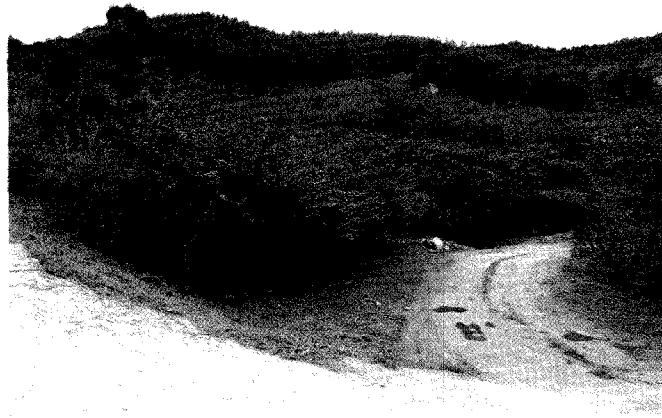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편백나무 숲길이다.

1960년대 조림하였으나 예전 소유자가 가꾸지 않고 방치한 편백나무는 불량하게 커서 처음에는 전부 베어내고 어린 조경수들을 심을 계획이었으나 전남 장성 편백나무 숲과 화순의 안양산 휴양림 삼나무와 편백나무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 나무 하나 하나를 일일이 손질하고 가꾸어 이제는 보기만 해도 시원스런 견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였고, 각종 조경수들은 물론 멀리 광주시에 있는 그의 과수원에서 품질 좋은 복숭아나무도 몇 그루 가져다 심고 구할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은 모두 구해다 심어 놓아 작은 수목원처럼 조성하였고, 물이 흐르는 곳에는 그의 특기를 살려 산속 자연석을 이용한 예쁜 연못이나 폭포수를 만들어 운치를 더하고 한쪽에는 넓은 잔디 광장까지 마련하여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담한 관리사와 파고라 등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설치하여 한 번씩 다녀간 이들은 모두 다 감탄하는 관광과 휴식 그리고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숲 속 정원 같은 농장이다.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승주농장

이곳 승주농장은 그의 사무실과 집보다도 그들 부부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제2의 고향이 되어 버렸다.

처음에는 진입 도로조차 없어 을씨년스럽던 것이 어렵사리 진입 도로를 내고 농장 구석구석까지 편리하게 작업 도로를 개설한 후 늘 푸른 난대수종을



배롱나무의 농장전경



굴거리나무 농장

선호하는 그는 새로 개간한 산비탈에는 전부 어린 굴거리나무를 심었으며 맞은편 비탈에는 빨간 새순이 예쁜 홍가시나무를 심고, 연못이나 잔디밭 등 경관을 조성한 곳은 어김없이 아왜나무, 동백, 굴거리, 가시나무 등 각종 난대수종들이 심어져 있고 도로변에는 꽃댕강과 코스모스, 별개미취 등 화초들이 가을을 장식한다.

새롭게 개발된 단풍철쪽도 한밭 가득 심어 놓아 신규 수종 개발에도 힘쓰는 그는 토질에 맞는 조경수들을 심고 알맞은 장소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파서 조경수 생산과 풍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힘 그리고 고마우신 분들

그가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누구보다도 부인(임부덕 57세)의 공이 가장 크다. 아마도 부인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성장할 수가 없었기에 항상 부인에 감사하며 그 덕을 잊지 못한다.


1980년에 결혼한 그는 1986년에 사무실과 전신포 옆에 화원을 내어 부인이 맡아 운영하게 하고 그는 조경업에 전념하여 큰 애로 없이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IMF의 시련은 그에게도 닥쳐 불경기에다 3억 원의 부도까지 맞아 절망에 빠졌을 때 부인이 집안 경제를 도맡아 하고 온 가족이 용기와 희망을 주어 재기할 수 있었다.

그의 성실성과 조경업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2008년 조경수협회에서 관정 자금을 지원받아 1일 200톤의 지하수를 확보 가뭄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더없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책임감과 신뢰성이 강한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한번 맺은 인연은 끊지 않는 의리의 조경인으로 광주지역 원로 중견 조경인인 남해종합개발 김응서

회장과 성삼종합개발 장경수사장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도 20년간이나 끈끈한 정을 이어가는 돈독한 사이란다.

나눔과 봉사하는 조경가족

그는 지금 지역사회 활동에도 앞장서서 그가 직접 주선하여 2008년에 남녀가 함께하는 상록 로터리 클럽을 창립하여 지역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우리 조경수 협회에는 1997년에 가입 해마다 나무 나뉘주기 등 협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진 농장 견학이나 해외 연수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기술 향상에 앞장서 일하는 모범 조경인이다.

처음 자연석 거래부터 시작한 작은 업체는 현재 직원 7명에 고정근로자 10명을 두고 9만여 평의 농장과 공사 시공으로 연간 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로 성장하였고, 계속 함께 일하며 걸어온 부부 사이에 두 남매를 두어, 딸은 조경학과를 나와 산림 공무원으로, 아들은 대학원생인 다복한 가정으로 항상 주위에 고마움을 느끼며 봉사와 나눔으로 살아가는 조경가족이다. 



옥과농장의 홍가시나무와 목련 묘지



옥과농장의 느티나무 묘지

